

1.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갈까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성,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갈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단정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향해 정죄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던 자리였습니다.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가는 길은 바로 나다."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도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명쾌한 공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진리를 접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두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 세상의 심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맡기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신앙이며,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가장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들었거나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꼈나요?

→ _____

-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누구를 향한 선포였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 _____

-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쉽게 판단하려고 할까요?

→ _____

-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겸손은 우리 신앙에 왜 중요할까요?

→ _____

- 가족이나 친구 중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죄보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마지막은 주님의 공의와 자비에 맡기고, 오늘 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